

향군, 호르무즈 파병 적극 환영...동맹 존중한 선택

관련국과 긴밀한 협력, 파병장병 안전 최선 다해야

국방부, 호르무즈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결정 향군, 성명 통해 파병검토 권고...공정 영향 끼쳐

향군은 1월22일 정부가 고뇌에 찬 결단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은 국익과 동맹정신을 존중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독자 파병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여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파병 장병들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호르무즈 해역 주변국에는 한국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있고 한국형 원유의 70% 이

상이 수송되는 해상통로로 봉쇄될 경우 중동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1월21일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는 향군이 1월13일 "한미동맹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주요일간지에 발표한 성명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은 성명서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독자 작전' 형식의 호르무즈 파병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성명

한미동맹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 안 돼

향군은 1월13일 "한미동맹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진보성향의 반미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극렬한 반미운동 및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어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이를 반국가적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1천만 향군의 힘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사례로 1, 2차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노 트럼프!(No Trump)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치며 벌였던 극

한미동맹, 안보 기본 축 반미단체 집단행동 강력 대처

렬한 시위, 미 대사 관저 담장 넘어 기습시위 사건, 주한 미 대사 참수 퍼포먼스, 호르무즈 파병 반대 성명 통해 미국을 패권국가로 낙인찍는 행위 등을 들며 그 정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르무즈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과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혈맹인 미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정신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 대사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빌미로 대사관 또는 대사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로부터 대다수의 한국인의 반미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하단>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하다"

김진호 회장, 연합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 논의

김진호 회장이 1월29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에이브람스(Robert B. Abrams)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하다."며 "지금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정신과 군사동맹차원을 넘어 가치동맹과 문화동맹의 범주까지 확대하여 '같이 갑시다'(go together)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향군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6·25 전쟁시 연인원 179만명이 참전하여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헌신한 열매이다. 그 이후에도 '68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69년 미전략정찰기 격추사건',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한국 방위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 까지 한미동맹의 깃발 아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1 정부는 파병문제를 국익과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검토하라.**
미국과 우리나라는 6·25전쟁 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혈맹이며 "미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해 왔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바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번 중동 사태로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정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 2 미 대사관이나 관저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지역이다.**
미 대사는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공인이며 대사관과 관저는 미국 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지역이다. 따라서 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여 입장을 밝힌 것을 빌미로 대사관 또는 대사를 공격하는 행위는 미국 조야 및 미국 국민들이 자칫 대다수 한국인의 반미운동으로 오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시민 단체의 반미운동이 불법으로 자행되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차후 동맹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전개된다면 우리 향군은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3 국민 여러분들께 국가안보를 위해 국론 결집을 호소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어 국가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진보와 보수로 반복되는 등의 남남갈등은 국론분열의 국가위기다. 이에 향군은 안보활동 강화를 위해 전국 조직을 활용,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여 국론을 결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감정적인 반미행동으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마라"
"1천만 향군은 오직 국민과 국가안보만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 지상작전사령부 위문...국군장병 격려

“유사시 필승 능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임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과 임직원들이 1월9일 새해를 맞아 우리 군 지상 작전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지난해 1월 새로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한 향군 위문단은 부대현황을 소개 받은 뒤 군의 선배로서 최근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

는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면서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진호 회장은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로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전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유사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새해를 맞아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위해 방문해 주신 재향군인회 회장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 본연의 임무는 변함없음을 명심하고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면에 이어>

김진호 회장-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안보정세 논의

또 김진호 회장이 “지난해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향군을 방문 시 한미동맹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방위비협상 등으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미국 정부는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타결이 순조롭지 않은 것과 관련, “한반도 방위를 책임진 지휘관으로서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우려 된다”며 “현재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준비태세와 관련된 군수지원과 건설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9천여 명에 이르고, 주한미군 의무·소방요원의 98%가 한국인이며 이중 병원직원으로 5백여 명의 한국

인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차후 운용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년에는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후 국회 비준까지 58일이 소요되었는데 금년 상황을 보면 2월 말까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4월 총선으로 인해 국회 비준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더욱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호 향군회장은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정부와 관련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명문가 포상계획 △주한미군전우회 재방한사업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동참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향군을 방문하여 안보강연을 해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쉬웠다.”며 “올 봄에 꼭 오셔서 안보강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OTC중앙회장, 향군 방문...김진호 회장 예방

안보위한 상호협력 당부, 신임 박진서 회장 취임 축하도



김진호 회장이 ROTC 중앙회 임원진들을 맞아 안보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ROTC중앙회 박진서(ROTC 15기) 신임 회장과 임원진들이 1월21일 향군을 방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김진호 회장은 “박진서 신임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향군 방문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21만여 ROTC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가발전의 초

석이 되어온 데 대해 선배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ROTC중앙회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진서 ROTC중앙회장과 임원진은 “ROTC중앙회가 향군

친목단체로 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하고 “2021년 ROTC 창설 60주년을 잘 준비하여 ROTC인들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향군은 ROTC중앙회 임원진들에게 회 현황을 브리핑하고 ROTC중앙회의 소개도 청취하며 앞으로 상호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초점

한미연합훈련 전면 재개해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1월20일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연합훈련 축소로 훼손된 준비태세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연합사령부 지휘부와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높은 수위의 훈련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목표는 언제나

한미동맹을 갈라놓고 두 나라가 갈등을 겪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막아 두 나라의 준비태세를 떨어뜨리고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에 취약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때가 분명하다”며 “북한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했을 때 격퇴시키기 위해선 훈련을 재개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비핵화 정책 전환해야...

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이 1월20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개최한 제30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정부는 북핵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철저히 하고 환상과 낭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개발을 저지시키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며 대북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남북대화를 차단하지는 건 아니지만 능

떨당하면서까지 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핵 문제는 극적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980년 주 이란 미국대사관 인질사건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같은 강경 접근은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㉞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의 어제와 오늘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195만 여명이 UN의 깃발아래 참전했다.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달려와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고 안타깝게도 4만 여명이 희생됐다. 만약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와 절망 속에서도 나라를 바로세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 발전에 혼신을 다하여 반세기만에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 재방한 사업 1975년 향군과 관광공사 공동 추진

따라서 정부에서는 1975년 광복 30주년, 6.25전쟁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재방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국제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여 추진하게 됐다.

당시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값진 희생에 보답하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 소개로 국위선양과 국제간 유대강화 ▲부수적으로 경제 영토의 확장과 관광시장 개척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 있었다.

또 초청기간은 5박 6일로 하고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제공하며 환영행사, 국립묘지 참배, 관문점 및 땅굴 시찰, 산업시설 견학, 관광, 위로연 등을 베풀고 내한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에게는 ‘평화의 사도 증서’와 ‘참전메달’을 수여했다. 이렇게 1975년 6월 15일 제1진 52명을 시작으로 연간 600~700명 수준으로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1980년도부터 사업의 주체가 향군 단독으로 변경됐다. 그 동안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유치 업무는 관광공사가 행사 추진은 향군이 맡아왔으나 업무의 이원화로 효과가 반감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비용 조달도 관광공사가 하던 것을 정부예산을 지원 받기로 하고 향군이 국제조직을 갖추고 있어 유치

업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군에 위탁하여 추진한 것이다.

1982년 사업 재정비, 향군 단독 추진 국가위상과 가치 높인데 크게 기여

이에 따라 향군은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제를 재정비하고 1982년부터 단독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해외 향군지회를 활용하여 본국의 참전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원 선발부터 신중을 기했다.

20~30년 만에 내한하는 참전용사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소개해 그들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국민들의 진정어린 감사의 뜻을 잘 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데 크게 기여했다.

연대별 실적을 보면 1970년대 7,187명, 1980년대 7,030명, 1990년대 6,939명, 2000년 이후 11,545명 등 2018년까지 총 32,701명을 초청하여 내실 있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2015년 까지 40년 동안 향군이 성심성의를 다해 추진해 오던 사업이 2016년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어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사업명도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바꾸고 사업목적도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와 경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은하는 국가와 국민, 참전용사와의 인연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두었다.

6.25전쟁 70주년, 새로운 대안 필요 주한미군전우회원 재방한으로 전환도 방법

아무튼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균 90세가 넘는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이후 주한미군 전우회원 재방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향군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홍보실〉

재향군인회 상조회 매각, 계약체결 완료

매각대금 320억, 향군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

재향군인회 상조회 매각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됐다. 향군이 지난해 11월29일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간 지 50일 만인 1월1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비즈제이, 오뉴이노베이션, 비즈제이 홀딩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날 잔금을 모두 입금함으로써 계약이 원만하게 종결됐다.

이번 상조회 매각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청담’에 위탁하여 추진했고 진행과정에서 하자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매각대금은 320억원으로 향군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 시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등 상조회 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특히 회원(고객)들에 대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약속했다.

인수업체는 1월20일부터 향군상조회와 합동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조회 매각이 완료되면 누적적자에 대한 경영부담을 덜고 매년 15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군, 대학로발전소와 업무협약

정회원 정가대비 66%할인 혜택

향군은 지난해 12월20일 공연기획사 대학로발전소와 공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로발전소는 공연 기획, 홍보마케팅, 티켓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가치를 실현 추구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대학로에서 절찬리에 공연하고 있는 연극 ‘오백에

삼십’, ‘자메이카 헬스클럽’, ‘가족뮤지컬 어른’ 등과 연결하여 관객들에게 티켓할인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향군이 대학로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군 정회원은 공연별로 정가대비 66%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하면 단체관람도 할 수 있다.

■문의 : 070-8285-0211

제17회 병역명문가 접수, ‘3대 현역 복무’

병무청은 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한 병역명문가 접수를 1월8일부터 2월7일까지 한달 간 진행한다. 2019년까지 병역명문가 5,378

가문 27,154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 형제 등 3대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90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기타

·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02-959-0000 : 30%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1-2000 : 40~50%

· 시민장례식장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693) 010-3535-4631 : 30~50%

· (주)대학로발전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44) 070-8285-0211 : 66%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

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죽교동 440-4) 061-243-3399 : 30%

기타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

국방부 2020년 국방정책 보고

국방부는 1월21일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2019년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2020년 국방정책 추진계획 보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보고 이후 스마트 국방혁신 및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시연이 있었다.

또한 업무보고에 앞서, 2함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22사단 GOP대대장, 레

바는 동명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과 국방망 및 위성통신으로 실시간 현장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대한민국과 세계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해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 아래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하여 국정기조 및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였다고 평가하고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방운영 전 분야에 공정·투명성을 확산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등 4가지 국방정책 추진방향과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 3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지역 초등학생에 학업 지도, 재능기부

육군 32사단 승리연대 장병

육군32사단 승리연대 권구환 중위, 이주현·권순완·이재형 상병, 권지혁 일병 등이 부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장병들은

지난 9월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굴렁쇠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다.



국방단신

국방홍보인장 박창식 임용

국방부는 1월22일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인장에 박창식 전 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사업단장(59세)을 임용했다. 신임 박창식 원장은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사에서 근무하며 정치·사회·문화부 기자, 논설위원 및 전략기획실과 연구기획조정실, 사업국 등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방부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방정책 홍보에 관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춘 최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원장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국방안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김으로써 국방정책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국방부는 1월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해군군수사 정보통신전대, 재능기부

해군군수사령부 정보통신전대는 1월6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해군의 집에서 군 자녀 초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코딩(Coding) 교육을 진행했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고력과 논리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 코딩이

필수로 반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5·6학년 실과과목에서도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맞아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흥미를 유발하고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공군16전비, 설 명절 앞두고 대민봉사

공군16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9일부터 21일까지 기지 인근 4개면 28개 마을에서 한방 의료지원, 이발 봉사, 온천욕 지원, 위문품 전달 등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

를 강화했다. 장병들은 한방과 전문 진료와 이발·염색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고 덕담을 나눴으며 셀프 어깨안마기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국군장병 삶의 질 개선하고 국민 편익 증진

◆인사 및 복지 제도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춰(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피복류 보급 개선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캠뻬트 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현금 지급액을 증액(연 69,000원→94,440원)한다.

병 징계 중 영창제도 폐지

헌법상 영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2020년 하반기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비군 제도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3월중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도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3월 중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 지급한다.

◆병무 제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 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과 전자증명기술 도입, 병무 관련 민원신청 가능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햇빛)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진다.

◆방산 제도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보훈단신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관련 자료구입

국가보훈처는 2021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와 조사 연구 등을 위해 1월14일부터 27일까지 제1차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자료 구입 공고를 진행했다. 서류접수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돼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현재 건립 중에 있다. 특히 작년 6월 첫 공개구입을 시작으로 등록문화재 제576호인 '한중영문중국어판 한국애국가 악보'와 '독립신문' 등 총 1800여점의 자료를 확보했다.

구입 대상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 광복·정부수립 및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로서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보훈 테마활동' 추진 사업자 공모

국가보훈처는 청소년의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2020년 '보훈 테마활동'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공모한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며 30여개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당 1,000여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청소년이 '보훈'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종일형(4시간 이상) 체험 프로그램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은 독립·호국·민주의 10주기가 집약된 해(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관련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배움터 사이트(http://edu.mpva.go.kr) 참고>

신청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이나 SW융합형(코딩) 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4·19 60주년 '국민 대합창 대회' 참가 접수

국가보훈처는 올해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해 '국민 대합창 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국민 스무 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뉘고 경연곡은 '4·19의 노래' 1곡과 '민주·자유·정의·화합·꿈·희망'과 관련된 대중음악 한 곡이다.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 위해 최선

국가보훈처 2020 업무보고

국가보훈처는 1월21일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사업과 함께 보

훈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보훈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졌다.

먼저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보훈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

장 서비스 개선 등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국민체감 보훈정책 방향 논의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020년 중점 추진정책 공유

국가보훈처는 1월17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하여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전국 지방보훈청, 현충원, 보훈지청, 묘지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등 35개 지방보훈관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보훈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보훈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의 큰 변곡점을 맞는 2020년을 맞아 '확실한 변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보훈정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특히 독립기념관, 보훈복지의료공단, 88CC 등 산하기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 국가보훈처 중점 추진정책을 함께 공유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죽미령 평화공원'을 방문, '초전 기념비' 참배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박삼득 처장 취임이후 보훈단체, 지방보훈관서, 보훈병원 등 6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현장과 사람중심의 보훈행정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각종 보훈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보훈행정과 보훈가족을 위한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연탄 배달 봉사·참전유공자 위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1월1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복지현장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조성순(92) 참전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및 환담을 나누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부문별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워크숍

국가보훈처는 1월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상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지원, 일자리 발굴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 '2019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돕는 각 부문별 실행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센터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오는 2월에 오픈할 예정이며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를 7곳에서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회 탐방 / 충북 보은군 향군

내실 있는 활동으로 주민에 사랑받는 안보지킴이

작은 도서관 마련, 군민에 문화 혜택...지자체와 상생하는 모범사례 참전노병의 날 행사 주관, 참전용사 명예 고양...후계세대 안보교육

지난해 11월28일 충청북도 보은군 향군(회장 김광일)에서 아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회관 3층에 준비 중인 '작은 도서관'에서 (사)해외동포 책보내기 운동본부에서 기증한 도서 2천여 권에 대한 전달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김광일 회장과 정상혁 보은군수는 주민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알차게 준비 중인 도서관을 보며 흐뭇해했다. 보은군 향군 작은 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문화교육 혜택을 주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임대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 회관 유휴 공간을 지역민에게 돌려줌으로서 향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공무원 등 민 관 군이 모두 참여하는 이 행사는 군 중심지를 구석구석 돌며 퍼레이드를 펼치며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고양하는 동시에 자라나는 후계세대에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10번째 맞는 이 행사 역시 지자체와 긴밀한 유대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온 김광일 회장을 비롯한 보은군 향군 임직원들의 노력과 안보의식 고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보은군의 협조로 군민들의 큰 성원을 받으며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다.

보은군 향군의 지역사랑은 여기서 거치지 않는다. 애향정신과 안보의식에 있어 남다르다고 자평하는 청년단의 활동이 그것이다.

지난 2011년 재발족하며 자리를 잡은 30여명의 보은향군 청년단은 안보제2보루 향군의 일원으로 자매부대와 유대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위문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부대끼고 호흡하면서 선배의 정을 장병들에게 베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자녀들을 중심으로 병영체험행사를 실시하여 후계세대 안보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다.

최우수 봉사상 청년단 향군 위상정립 큰 역할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접수리봉사는 적십자사와 연계해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추진해 1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단은 이 공로로 자원봉사대회 최우수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해 이웃과 함께하는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위상 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은군 향군의 활동은 한마디로 내실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속이 있고 부족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활동으로 주민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직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보은군 향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작은 도서관 마련, 향군-지자체 윈-윈

아울러 이 사업은 향군과 지자체간의 새로운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회관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보은군향군과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정상혁 보은군수의 이해가 일치했고 평소 향군의 안보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던 보은군의 의지도 큰 역할을 했다. 보은군 향군은 보은군의 협조로 책걸상, 책장, 냉난방시설, 정수기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아 오는 3월 신학기 개학과 함께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까지 지원받아 재정수익의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보은향군은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내부적으로 재정수익 효과를 거두는 한편 대외적으로 회 위상을 제고하는 회 운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군민에 사랑받는 참전노병의 날 행사

이 뿐만 아니다. 매년 10월 지역 대표축제인 '대추 축제' 식전행사로 보은향군 주최로 열리는 보은군 참전노병의 날 행사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진다. 37사단 11연대 3대대와 해병대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특전동지회를 비롯한 참전단체, 보은



※ 충청북도 보은군 향군은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서적 확보를 위해 도서기증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은군 재향군인회 : (043) 544-2122

해외지회

독일 향군, 신년 하례식

조국의 안녕, 동포사회 화합 다짐



향군 독일지회(회장 유상근)는 1월2일 오후 독일 쾰른 포르츠에 소재한 카이저 팔라스트 증식당에서 지회 고문인 김계수 박사, 한호산 고문, 성규환 고문, 김동경 고문,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최광섭 글뤽아우프회장, 향군회원 그리고 지역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모임을 갖고 경자년 새해를 함치게 출발했다.

이날 유상근 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실무적인 준비를 총회에서 하게 될 것임을 안내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고국의 평화와 안녕, 동포사회의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북동부 향군, 신년하례회



교민사회 발전 기여 미 북동부 향군(회장 황재현)은 1월2일 신년하례식을 갖고 교민단체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민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캐나다 서부 향군 신년 교례회



활발한 안보활동 결의 캐나다 서부 향군(회장 정용우)은 1월11일 벤쿠버에서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활발한 향군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경기 동두천 향군 임직원 매월 5천원 정기기부 동두천 희망 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57호 선정



경기 동두천시 향군(회장 유재중)은 1월8일 동두천 희망 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57호로 선정되어 가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 향군 임직원들은 매월 5천원씩 정기기부 나눔 실천을 약속했다.

유재중 회장은 “평소 지역안보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이어가고 있

다”며 “착한일터 선정으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후원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두천시 향군은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철 김장나눔 행사, 저소득층 성금지원, 겨울나기 백미 전달 등 꾸준한 이웃돕기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어 왔다.

신임 안보교수 위촉식 ...안보교육 활성화 토의 향군 안보활동 방향 공유, 안보교육활동 기여 다짐

향군은 1월30일 서초동 향군회관에서 신임 안보교수 위촉장 수여행사와 함께 2020년 향군 안보교육활동 및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보교수들은 금년 한해 안보활동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용석 호국안보국장은 금년에 새로 선발된 신임 안보교수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안보단체”이면서 동시에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우리 군과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향군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임 안보교수들



이 각자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 국가안보를 위한 향군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향군 안보교수들은 향군 소개와 향군활동 동영상 시청하면서 향군이 지향하는 안보활동 방

향을 공유하고 금년 한 해 성공적인 안보교육활동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안보교수들은 향후 2년간 향군 각급회와 지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 장병, 직장인들을 대상으

신탄진(새여울) 휴게소, 사랑 나눔



신탄진 산막 노인정 방문, 무료급식 봉사

향군 휴게소사업본부 신탄진 새여울 휴게소 임직원들은 1월10일 신탄진 상서동에 있는 산막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향군 휴게소사업본부 신탄진 새여울

강원 고성군 향군 ‘나홀로 신병’ 면회 호평

2012년 시작 ... 91회, 520명 군인 격려

강원도 고성군 향군(회장 최대수)과 고성군, 육군 제22보병사단은 1월19일 22사단 사령부에서 ‘나홀로 신병 면회사업 성과 보고 및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훈련병 면회에 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나 홀로 신병 면회사업’은 가족, 친지 등을 초청해 실시하는 신병훈련 수료식 때 부모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회를 오지 못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향군 임원과 지역 기관·단체 회원들이 수료 축하와 영의면회를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이때 교관과 조교의 격려 활동도 병행해 이루어진다.

고성군 향군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회원들은 신병수료식 때



나 홀로 신병에 대해 계급장 수여, 오찬, 관광지 투어 등을 함께하며 신병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며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군장병도 우리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나 홀로 신병 면회사업은 2012년 시작되어 2019년 12월 현재 총 91회, 520명의 군인들을 면회·격려했으며 올 한해 9회를 운영해 14명의 나 홀로 신병과 39명의 교관 및 조교를 격려했다.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모바일 앱 2020년 1월 3일 OPEN!

대한민국재향군인회
Korean Veterans Association

향군정회원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온라인가입 바로가기

향군 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향군 가맹점 보기

향군 연락처

향군 연락처

간편한 정회원가입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모바일 바로보기

정회원 자격 : 군번소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중앙고속관광, 고성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10~30%)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APP 다운로드 방법

Google Play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12월21일 ~ 1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1월2일 새해를 맞아 서울현충원 참배. 1월13일 종로 탑치과 등 3개소와 향군 우대가맹점 업무 협약식 가져.

송파구회 : 1월16일 설날을 맞아 저소득층 6.25 참전유공자, 독거노인, 회원들에게 과일 50상자 전달.

영등포구회 : 1월16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이호령 박사를 초청,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안보강연회 개최.



노원구회 : 여성회는 1월4일 상계3, 4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 미용 봉사활동 실시.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1월10일부터 13일까지 해외 안보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 연변일대 방문. 12월30일 부산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가료중인 참전용사들을 위문.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월16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신년교례회 참석.



남구회 : 1월6일 새해를 맞아 안보강연회를 가지고 안보의식 고양.

서구회 : 여성회는 1월10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달성군회 : 1월4일 유가사 출입로에서 비슬산 산불예방활동 발대식을 갖고 매주 토요일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지킬 것을 결의.



북구회 : 노원동회는 최근 지역사회 내 복지마당 형성을 위해 '착한단체'에 가입, 헌관 전달식 개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월2일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훈가족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행사 참석.

경기도 향군



의정부시회 : 1월6일 새해를 맞아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50여 명의 지역 노인들에게 떡국 및 다과 등을 제공.



수원시회 : 12월26일 예산 윤봉길의사 기념관, 수덕사에서 역사탐방 행사 및 송년행사 개최.

성남시회 : 1월2일 새해를 맞아 현충탑 참배, 호국영령 얼 기려.

강원도 향군



태백시회 : 여성회는 12월21일 상장동 태백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반찬 봉사활동 전개.



고성군회 : 거진읍회 여성회는 1월10일 고성군청을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화천군회 : 1월17일 향군회관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 20여명에 대한 위촉식 가져.

충청북도 향군



증평군회 : 여성회는 12월27일 6.25참전유공자회 증평지회와 향군 회원 중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 직접 만든 반찬 5종과 떡을 전달.

음성군회 : 12월23일 2020 겨울왕국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제천시 일원에서 송년단합 행사 실시.

청주시회 : 1월2일 새해를 맞아 충훈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얼 기려.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중구회 : 1월20일 설날을 맞이하여 주민센터와 보훈단체를 방문, 지역 국가유공자 및 소외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떡국떡 400kg(200박스)를 전달.

공주시회 : 1월10일 '2020 겨울공주 군밤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축제장 환경정



화 봉사활동 펼쳐.



보령시회 : 1월1일 새해를 맞아 현충탑, 경찰묘역을 참배하고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들을 초청, 떡국 대접. 1월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8361부대 2대대(보령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1월14일 설을 맞아 재래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 환경정화활동 전개.

전라북도 향군

김제시회 : 12월26일 김제시청을 방문, 박춘배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들에 대해 의견 나눈다. 1월 16일 현안 업무 토의 및 정회원 확보, 조직 활성화 등 업무소통을 위하여 김제대장과 간담회 실시.



임실군회 : 12월2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거제도 일대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진안군회 : 여성회는 12월24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안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



고창군회 : 12월23일 불우이웃을 위한 진목송년회 성금모금액 1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

설 명절 앞두고 참전용사 애국의지 기려 ... 자공심 고취

부산시 향군 6·25참전유공자 위로행사

부산시 향군(회장 김윤호)은 1월20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부전동 초원가든에서 부산지역 6.25 참전유공자들의 자공심을 높이기 위한 위로행사가 가졌다.

6.25 참전 용사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윤호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6.25에 참전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때의 전쟁사를 들으면서 후배들이 애국심을 기르고자 한다.”며 참전용사들을 위로했다.

행사에 초대받은 참전용사들은 부산시 향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성, 젊은 사람 못지않게 대한민국 사수를 위해 호국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향군여성회와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자원위원들도 힘을 보탤다.



정읍시회 : 안보단체협의회는 12월24일 금호 돌솥밥 식당에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안보에 대해 의견 나누. 12월28일 아크롤 웨딩홀에서 열린 고엽제전우회창립 제21주년 기념식 참석. 12월23일 정읍대대 대대장이 취임행사 참석.

군산시회 : 12월27일 관내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임직원 위로. 12월30일 참전용사가정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장수군회 : 1월14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장수군 보훈안보단체장 간담회 참석.

순창군회 : 12월23일 순창군청 주관으로 실시된 공직자 안보통일교육 참석.

익산시회 : 1월2일 팔봉군경묘지에서 실시된 신년 총령탑 참배행사에 참석, 호국영령들의 명복 빌어. 여성회는 12월23일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 노고 격려.



부안군회 : 1월10일 향군회관에서 신임 김정남 여성회장 취임행사 가져.

전주시회 : 1월3일 향군회관에서 전주시 12개 안보단체 회장, 사무국장, 과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 12월 26일 효자동 소재 전주성에서 회장단 송년 간담회를 갖고, 노고 격려.

광주 전남향군



광주 전남도회 : 여성회는 1월15일 남구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봉사활동을 실시.



광주 남구회 : 1월1일 시작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경자년 새해맞이 떡국 나눔 배식봉사 활동 실시.

광주 광산구회 : 12월21일 향군정신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안보 토론행사를 가져.

구례군회 : 12월24일 향군회관에서 임직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실시, 안보의식 고취.

영암군회 : 1월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보훈안보단체 불우회원 4가정의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 건조 후 배달하는 ‘사랑의 빨래방’ 봉사활동 실시.

목포시회 : 여성회는 1월8일 목포아동원에서 급식보조(식재료 손질) 봉사활동 실시.



보성군회 : 1월6일 새해를 맞아 관내 현충탑 참배행사를 갖고 호국영령 열 기려.

여수시회 : 1월2일 새해를 맞아 자산공원 현충탑에서 참배행사를 갖고 호국영령 열 기려.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1월8일 경북도청에서 실시된 사회단체장 신년교례회 및 정책 간담회 참가.



포항시회 : 중앙동회는 1월14일 독거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 부모 가정 세대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약 60세대에 라면 60박스

를 전달.

경주시회 : 동천동회는 12월22일 7516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하고 준비해간 팔죽을 장병들에게 대접.



문경시회 : 남시육 회장은 1월16일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주민에게 전해달라며 쌀2포와 김2박스를 점촌1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 여성회는 1월15일 문경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음식 및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여성회는 1월14일 김해 보훈요양병원을 방문, 봉사활동 전개.

거제시회 : 1월2일 새해를 맞아 고현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의지 다져.



창녕군회 : 12월30일 육군 5870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고성군회 : 회화면회 여성회는 1월8일 회화중학교 3학년 배예람 학생에게 팔죽행사로 모은 성금으로 장학금 전달.



통영시회 : 중앙동회는 1월9일 충무대파트 앞에서 폐지를 주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 5명에게 온정을 담은 마음을 격려금 전달.

양산시회 : 여성회는 1월9일 제이컨벤

션 웨딩홀에서 신임 전정애 회장 취임행사가 가져.



울산 중구회 : 1월16일 동천컨벤션에서 박태안 중구청장, 신성봉 중구의회장, 보훈안보단체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회원복지 증진대회 개최.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1월20일 아리랑호텔 2020년 안보결의대회 갖고 안보의지를 다져.

울산 남구회 : 1월2일 신년을 맞아 현충탑 참배, 호국영령 열 기려.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임직원 10여명은 12월23일 해군 615비행대대를 방문하고 부대 간부들과 환담 후 위문품을 전달, 장병들을 위로. 12월 23일 화목원에서 향군 원로 20명을 초청, 친교 송년간담회 개최. 12월30일 향군회관에서 안보교수 간담회 개최. 1월16일 향군회관에서 2020년도 제주도 향군 업무추진 방향을 위한 간담회 실시. 1월20일 해병 9여단 92대 교육관에서 예비군지휘관 51명을 대상으로 박광수 안보교수를 초빙, “세계정세와 우리의 안보”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제주시회 : 외도동회는 1월2일 충훈비공원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행사를 갖고 위훈 기려.

친목단체 활동

한동주 회장 취임식



3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한동주)는 1월21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15대 한동주 총동문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새해를 맞이하여 1월 9일 국립 서울 현충원 포병위령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렸다.

신년회 및 임원세미나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선기)는 1월11일 해군호텔에서 2020 신년회 및 임원세미나를 가졌다.

신년인사회



의정총동우회(회장 이공윤)는 1월13일 종로 한일장에서 신년 인사회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육군기술행정사관총동문회(회장 남흥건)는 지난 12월26일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2019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무후광복군 합동추모 제향 봉행식



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는 1월18일 강북구 수유리 무후광복군 합동묘전에서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이하여 무후광복군 합동추모 제향 봉행식을 거행했다.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성우회(회장 이종욱)는 1월2일 새해를 맞아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얼을 기렸다.

신년하례식



해군 UDT/SEAL전우회(회장 한근섭)는 1월11일 해군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정보동우회 : 2월5일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2월19일 일품헌에서 임원 및 단체 장간담회.
- ▲영관장교연합회 : 2월7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
- ▲육군정보통신장교동우회 : 2월11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재향여군연합회 : 2월12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 ▲포병전우회 : 2월13일 양재 시민의 숲에서 자연보호활동.
-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 2월13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의.
- ▲성우회 : 2월13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1/4분기 운영위원회의, 2월26일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 ▲갑종장교전우회 : 2월14일 전우회 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 ▲백마고지참전전우회 : 2월28일 제기동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 ▲해병대전우회 : 2월29일 덕산 스포텔에서 정기총회.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향군장학기금

- ※ 기간 : 19년 12월 24일 ~ 20년 1월 27일
-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210)
-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고문 정소두 1(11)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3(13)

▶ 정기 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64)
- 권율부대 강모아 1(54)
- JSA 경비대대 이한수 1(25)

▶ 특별 기부

- KB국민은행 서울숲지점 1000(20000)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재향군인신문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표적인 6·25전적기념관 8곳을 매월 1곳씩 8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전쟁의 고비고비 참전용사들의 자유수호 의지가 스며들어 있는 전적지에 조성된 기념관들을 통해 그날의 치열했던 전쟁의 참상을 체감하고 영웅들의 위훈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6·25 전쟁 첫 승리 기념 감우재 전승기념관

치열했던 그날, 참전용사 호국의지 숨 쉬는 안보교육의 장



음성지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 11월 개관한 감우재전승기념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첫 승리를 거둔 음성지구 전투(동락리·무극리·감우재·부용산 일대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무극전적국민관광지에 세운 기념관으로 2003년 11월 개관하였다. 건물면적 348.38㎡의 지상 2층 건물로 음성지구 전투 관련 자료와 6·25 전쟁 당시의 전투장비 등 약 200점의 전시물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1층 전시실에는 음성지구 전투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실과 한국전쟁

의 참상을 시기 순으로 정리한 대형 스크린, 타임비전 등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감우재 전투 상황 디오라마와 음성지구전투를 회고하는 맵식비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의 병기류·복장류·보급품, 총탄에 맞아 깨진 감우재 마을의 종,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당시의 생활상과 전쟁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감우재 전승기념관 043-871-3114>

※감우재 전투

북한군은 1950년 6월25일 새벽, 기습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여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장호원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방향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4일 음성군 방면으로 이동하여 방어망을 구축하고 북한군에 대비했다.

1950년 7월5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을 소여리 부근에서 북한군을 포위하여 섬멸했다. 7월6일과 7일 국군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던 북한군을 공격하여 무극리를 탈환하고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반격을 받고 후퇴하여 부용산과 무극리 남쪽 백야리 351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일전에 대비했다.

7월 8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서부에서 이동해 온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방면으로 이동했다. 이때 북한군 15사단 병력이 남하해 오자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는 감우재(기름고개)에서 적 1개 중대를 섬멸하고 또 다시 공격해 오는 2개 중대도 격퇴했다. 7월9일 북한군 1개 대대 병력이 재차 공격해 오자 제11연대 제2대대는 감우재에서 적을 격퇴했다.

감우재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 2,707명을 사살, 170명을 포로로 잡았다. 또한 각종 포 24문, 박격포 7문, 차량 65대, 장갑차 7대, 기관총 55정, 소총 1,187정, 무전기 4대를 노획하는 등의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여행정보

논산 딸기 축제

기름진 논산평야의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서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어 맛과 향이 우수한 논산 딸기 축제가 2월19일부터 23일까지 논산천둔치 및 관내 딸기밭 일원에서 열린다.

맛과 향이 우수하여 지난 2012~13년에는 전국 탐 딸기 품질평가회에서 최우수 품질 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가『우수특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넉넉한 인심과 정감이 흐르는 충절과 예학과 딸기의 고장 논산, 대한민국 대표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논산딸기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 041-746-8381~2>



청평 얼음꽃 축제



청평 얼음꽃 축제가 2월23일까지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일대에서 열린다.

호명산 줄기 산자락에 얼음꽃이 피어나 연인



건강정보

발바닥 뒤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족저근막염'

편안한 신발 예방에 도움 ... 장기간 통증, 체외 충격과 치료 시행

족저근막은 발의 바닥에 넓게 퍼져있는 단단한 섬유성 결합조직 구조물로 다섯 개의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뒤편이 찢어지는 전내 측 부위에 부착하여 걸어다닐 때 발을 올려주며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증상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을 디딜 때 뒤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등 한달카로운 통증을 느낄 때가 많다.

원인

40~60대 나이, 달리기나 장시간 걷기 등의 운동, 평발, 종아리(아킬레스) 근육 단축, 체중 증가, 족부 관절염, 서있는 시간 증가, 불편한 신발(하이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진단·검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하며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발 뒤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등

들 및 가족이 나들이하기 좋은 청평에서 썰매 타기, 얼음꽃 포토 존을 이용해 추억을 만들고 얼음 위 구멍을 뚫어 송어낚시를 하여 즉석 회, 송어 구이 등 시식을 통한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청평 얼음꽃 축제에는 또한 주변에 체험코스 중 양 내수면 연구소의 철갑상어, 비단잉어, 향어, 백련어, 초어 등의 민물고기 양식 모습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청평얼음꽃축제위원회 031-585-9449>

탐라국 입춘굿놀이



몇 옛날 탐라국 시절부터 풍년기원 의식으로 치러지다 일제치하에 제주민들의 정신적 결속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중단됐던 탐라국 입춘굿이 1999년에 '탐라국 입춘굿놀이'로 복원됐다. 굿에 이미 '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데서 꼬리표를 떼고 '탐라국입춘'이라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까지 복원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월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전통 문화축제를 표방하는 만큼, 옛 풍습을 되살린 여러 과정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례(세경제)와 제주 원도심을 누비며 흥겨움을 널리 알리며 춘등, 제주신상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제주 민예총 064-758-0332>

치료방법

진통 소염제 투약, 운동 조절, 족저부 스트레칭, 깔창, 국소부위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치료 방법이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통증이 있을 경우 체외 충격과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예방 및 관리요령

장시간 서있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족저부 스트레칭과 마사지 등을 시행하며 과체중이 있을 경우 적절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바닥 부위에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예방에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보정세보고 북한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

북한은 지난 연말 4일간(12. 28 ~ 12. 31)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본고는 2020년 1월 1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분석 요약한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발췌해 정리한 글이다.

(편집자 주)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4개의 의제가 상정되었다. 첫째, 조성된 대내외의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 둘째, 조직문제 셋째, 당 중앙위 구호집 수정보충 넷째, 당 창건 75돌 기념 등 이다.

첫 번째 의제인 당면한 투쟁방향과 관련 총 8개의 결정문이 채택되며, 김정은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이 드러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접적인 도발 예고나 핵실험, ICBM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미북 대화 중단 선언과 같은 우려했던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고,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 지속 등을 언급했지만, 일정한 모호성을 유지해 대미 압박수위를 조절했다. 일단, 정책적 운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신중함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미 북 관계를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표현하며, 향후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협상 재개의 문은 열려있다. 대미전략의 승부 카드로 크게 시간(장기전)과 전략무기의 개발, 선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등을 내세웠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신중한 길의 모습을 보이며, 김정은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는 정면 돌파로, 미국 태도의 이중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자주권과 국가안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압축된 대내외 슬로건을 내세우며 김정은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사적(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요지이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려했던 미북대화 중단 선언은 결국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예상되는 미 북 관계를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표현, 미국의 대북한 입장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남겨졌다. 한편 관심사항이었던 핵무기(핵 무력)에 대한 직접 언급도 없었다. 다만,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새로운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피력했다. 새로운 전략무기는 미국을 압박하는 핵심카드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사실상 선 대북 제재(단계적 또는 부분적) 해제 조치, 후 비핵화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자력강생과(핵)억제력 강화의 길이지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은 길이다. 전체적으로 절제와 신중함, 운신의 최대 폭을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미국 대선 판세와 향방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상황, 중국·러시아의 중재 목소리 등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수위를 조절해 가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

정책적 운신의 폭 확보에 초점

드러난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버티는 자력강생과 미국을 일정하게 압박하는(핵)억제력 강화의 길이다. 억제력의 폭과 강도, 비핵화의 여부, 미북 공약의 파기 여부는 미국의 대북 입장과 적대시정책 철회 여부 따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닫힌 길은 아니다. 미국을 직접 자극하여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향후 정책적 운신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읽혀진다.

미국 대선 판세의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 향후 미국의 대북한 메시지, 중국·러시아의 중재 목소리 등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수위를 조절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과 실제 현시 수준이 향후 압박과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길은 이미 정해진 하나의 길이라기보다는 향후 1년간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과도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의 길로 보인다.

장기전 설정의 두 가지 차원

통치용 장기전체제와 정치적 시간 확보

그런 의미에서 대미 장기전 언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실제 장기전을 대비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대북 제재의 해제가 단기간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가 운영을 장기전 체제로 조정하는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향후 1년간을 정세의 불확실성을 관망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치적 시간으로 활용

대미전략 구도... 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후 비핵화 협상

용하는 명분용 차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적 불확실성, 대선 판세가 정리될 때까지 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며 일정한 긴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북 대화를 미국이 정치 외교적 잇속 차리기, 불순한 악용을 한다는 비난은 역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이번 전원회의는 향후 1년간의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통치 차원의 장기전 체제로의 전환, 대외적으로 미국 국내정치 향방을 저울질할 정치적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미 북 관계를 교착의 장기성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적 운신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정면돌파전, 대북제재에 대응한

자력강화와 경제 조정이 초점

이번 전원회의의 전체 구성은 현 한반도 정세의 위기와 엄중성의 책임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군사위협·대북제재)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워 대응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전체 보고와 결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정면 돌파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무려 23번 등장했다. 정면 돌파전을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 내는 것으로 규정했다. 기본전선을 경제 전선으로 설정했다. 많은 지면을 자립경제에 할애했다. 또한 정면 돌파전을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 담보할 것도 강조했다. 기존 핵무기 실험 모라토리엄 공약파기 시사, 전략무기 개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등으로 대북제재 흔들기에 나설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정면 돌파전은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번 전원회의가 제재 장기화에 버티면서 제재 부담성을 알리고 흔들는 대내외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다. 향후 정면 돌파전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부각시키는 슬로건, 사상의 형식, 통치 코드로도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투쟁구도를 제재 vs. 자력강생 프레임으로 설정한 것은 그런 일환이다.

대미 협상전략 변화

선 제재해제 조치 후 비핵화 협상 재개

이번 전원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미 협상전략의 변화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 결렬 직후 주장했던 구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동시 교환에서 한층 높아진 구도 설정이다. 향후 대미전략의 핵심구도를 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후 비핵화 협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실상 선 대북제재(단계적 또는 부분적) 해제 조치, 후 비핵화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공세성, 대미 공략법의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 조치해야만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 입장에 대응한 카드다. 이 전략은 비핵화 대 안전보장(군사위협·대북제재 포함) 교환구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안전보장 요구는 한국에 제공되는 핵 억제력(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핵군축을 의미한다. 사실상 비핵화의 범위를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제력 제거를 포함하는 북한식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이동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충격적 행동과 전략무기 개발

대미 압박 및 안전보장 극대화 카드

비핵화 대 안전보장 구도는 전략무기 개발의 정당성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고 피력한 부분이다. 관심사항이었던 핵무기(핵무력)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새로운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새로운 전략무기는 미국을 압박하는 핵심카드로 보인다. 경제의 자력강화가 제재에 대응한 대내용 카드라면, 전략무기 개발은 대미 압박용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전략무기의 북한식 정의를 모호하게 처리한 점은 미국의 반응과 정세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모호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현시 수준을 조절할 가능성은 있다.

대규모 전원회의의 형식과 신년사 생략

전환의 책임과 부담의 분산

이번 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당 대회에 버금가는 4일간의 긴 일정, 대내외 문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의제 논의, 당중앙위원회 및 대규모의 방청 동원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 형식을 취한 점이 특징이다. 첫째, 새로운 길의 전환적 결정을 당 전체의 총의를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소위 전환의 명분을 회의 규모와 시간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전환의 중대 결정이 갖는 책임과 부담의 분산이다. 지난 2년여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약속하며 정세전환을 주도해 왔지만 결과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뿜는 강조하는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다시금 얘기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도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이 제시했던 과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서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면 돌파전 및

대내 결속 위한 당 지도부 조직 정비

대대적인 조직인사가 이뤄졌다. 지난 해 4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 연설에서 구체화한 국가건설론 4개 축 중 하나인 당의 영도 보장의 연속선상에서 대미 장기전체제 일환으로 영도체계의 강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면 돌파전의 핵심은 경제 사업, 전략무기 개발, 정치사상인데, 담당 인물의 교체가 이뤄졌다. 당 군수공업 중심의 전략무기, 내각 주도 자력강생, 조직 사상사업 및 주민 통제 등과 관련한 인물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자력강화를 위한 국가관리사업과

경제사업 바로잡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사업의 전반적 문제를 가감 없이 솔직히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과나 전망보다는 관리의 문제점 지적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경제의 '장기전체제'로의 전환, 자력강화를 위해 큰 틀에서 사업방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

지난 해 정세전환 이후 내각의 역할 강화를 주준해 왔으나, 경제사업에서의 당과 행정의 오랜 갈등구조, 경제난 이후 특권경제의 구조화, 짧은 기간 과도하게 펼쳐놓은 국책건설사업 등이 변화하는 경제 현실과 충돌하는 데서 나타나는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지적과 해법 제시는 국가관리와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향

지난 해 4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국가 건설론을 구체화했다. 국가건설의 4개축으로 대외적으로 자위의 혁명적 노선, 자립적 경제, 당의 영도 보장,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은 대체로 이때 제시한 국가 건설론에 입각해 있다고 보여진다.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들이 이미 지난 해 4월 대강의 기초를 잡고 하반기 미 북 협상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구체화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 해 10월 김 위원장 백두산 군마 등정 보도에서 밝힌 웅대한 작전, 새로운 전략노선도 그 구체화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전원회의의 결과는 상당한 준비와 고민을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우려했던 소위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견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1~2월이 중대 교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 미 국무부 대북 협상팀 진용 정비, 미 재선 레이스 등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견여야 대북 협상에 대한 집중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미 북, 남 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은 정세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볼 수 있다. 지난 해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3원칙(공동번영, 전쟁불가, 상호안보)을 보다 과감하게 재천명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메시지 발신자가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안전보장을 미 북의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한 미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안전보장의 구체적 아이টে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호국안보국>